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교회설립 7주년 기념행사 준비 한창

바자 · 성경암송대회 · 장로 장립식 · 비전 2020운동 등

바자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가 10월 14(수) - 16일(금) 3일 간 우리 교회당에서 열리게 된다. 이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새 예배당 건축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관련기사 1, 4면)

전교인성경암송대회

11월에는 전교인이 참여하는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예선은 각 교회학교별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선은 저녁 찬양예배 시에 갖게 된다. 암송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 16장이며 1996년도에 암송범위였던 요한복음

17장은 칩사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참가자의 희망에 따라 암송대회 시 함께 외울 수 있다.

감사예배 · 성찬식 · 음악예배

'98주수감사절과 아울러 교회설립일인 11월 22일(주일) I · II · III부 예배는 감사예배로 드리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 이날 찬양예배는 감사 음악예배로 드린다.

장로 장립 및 안수식

교회설립 7주년 기념일인 11월 22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5명의 피택장로가 장립식 및 안수식을 갖게 된다. 지난 6월에 선출된 피택장로들은 매주 토요일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고시를 위해 노회가 주관하는 예비공부에 참석하는 한편 시취 후 시험에 합격하면 11월 22일 안수를 받게 된다.

'98비전2020운동 승전감사 · 전도시상식

11월 22일은 또한 10월 4일에 발대식을 갖고 출발한 '98비전 2020운동 50일 간의 행진을 마치고 승전을 감사하는 날이다. 이날 찬양예배 시에는 승전보고와 전도시상식이 있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모임과 나눔

'98바자준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기증품을 접수한다. 기증자는 기증품을 제출할 때 오늘 주보에 삽입된 '바자출품원부' (아래 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증에는 기증자의 성명, 교구 등과 함께 기증품의 수량 및 권장가(희방단가)를 함께 적어 내도록 되어 있다.

접수증에 기록된 권장가는 바자준비위원들이 가격을 책정할 때 참고하여 재조정될 예정이며 판매 금액은 전액기증자의 명의로 건축헌금으로 기록되게 된다. 접수는 사무국.

기증 가능한 물건들(중고품 포함)

- ▶ 의류, 잡화
- ▶ 가구, 전자제품, 그릇
- ▶ 장난감, 학습품, 악기, 서적, 테이프, CD
- ▶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 ▶ 운동기구
- ▶ 침구 및 수예품
- ▶ 식품
- ▶ 부동산, 회원권, 주식, 자동차, 귀금속, 카메라, 개인 소장품, 상품권, 도자기, 액자...

건축입찰 마감

지난 10일(목) 오전 12시 사무국에는 우리 교회 새 예배당을 짓겠다는 회사들이 준비해온 입찰서류를 제출하면서 서로의 낙찰을 기원하는 마음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긴장감마저 갖게 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이들이 제출한 내용을 엄밀히 평가하여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30일 이전에 회사 선정을 마치고 계약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전도회 연합회 특강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는 가을 신앙 특강을 15일(화) 11시 1층 예배실에서 갖는다. 강사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이혜숙 권사로 "21세기 교회와 선교여성"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하게 된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교구별 친교의 시간도 갖고 전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될 이번 행사에 여전도회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신학 지망자 노회 시취

목사 후보생 고시 예비공부가 10월 9일(금) 오후 3시 노회 고시부 주관으로 소말교회당에서 개최된다. 본 고시는 10월 15일(목)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있게 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소명감이 있는 신학 지망자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 노회 고시를 거쳐 신대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할 수 있다.

바자출품 원부

★NO.		1998.	
품명	수량	권장가	판매가
			★
			★
(참고)			
기증자	교구	교적번호	
	성명		직분
	가족		

※ 표시란은 기록하지 마시고 출품과 함께 기록하여 접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격 표

★NO.★	
품명:	
권장가:	
★판매가:	
기증자:	
교구:	
가 격 표	
★NO.★	
품명:	
권장가:	
★판매가:	
기증자:	
교구:	

바자품 접수증

★NO.★		
품명	수량	권장가

교구: _____
성명: _____

감사합니다.

1998. _____
서울교회
건축 바자 본부

이사야 강해

주께서 멸하시리라

이사야 10장 24 - 34절

우리에게 역경이 오거나 환난이 오고,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가로막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도 하기 전에 먼저 두려움 때문에 좌절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며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24절).

1. 두려워 말라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앗수르의 막대기나 몽둥이를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24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 생명도 막대기에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요 17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원수가 갖은 모략을 해도 안전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2. 남은 자에게 올 자유

풍량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보통이 3일이고 길어야 2주 정도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에게 닥쳐온 풍량은 곧 잠잠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노를 앗수르로 옮겨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매를 때리시려고 한 것은 죄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를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때리시던 매를 중단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십니다(시 30:5).

26절 말씀을 보면 시온을 때리시던 몽둥이와 채찍이 앗수르로 옮겨집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백 명 군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미

디안 사람을 멸망시키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갑자기 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는 원수 마귀는 갑자기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서 하신 것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26절).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속수무책이었

적군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원수들은 무섭게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에는 방어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시온산이 눈에 보이고 대장이 그 산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고 했으니 이스라엘이 점령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하셨습니다. 쳐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이 앗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 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날에 그가 높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꺾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백백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관능 있는 자에게 작별을 당하리라”(사 10:24 - 34)



이종운 목사

턴 바로 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남은 자에게는 고통이 끝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앗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멍에였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가 벗겨질 뿐만 아니라 부러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앗수르의 종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까닭입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말은 예수님 까닭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멍에가 부러지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 29)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3. 앗수르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앗수르와 이스라엘의 영을 넘어서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별 떨면서 도망갈 궁리만 하는데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아나돗까지도 가련하다고 합니다(30절). 모두 피난하고 도망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어오는 앗수르의 산헤립 왕을 죽이고 끝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은 하나님의 안식처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격으시는 가지는 앗수르의 교만을 말합니다. 거칠 것이 없이 쳐들어오는 앗수르의 교만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마치 못가까지 꺾으시듯 잘라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말로이며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사탄과 사망 권세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어야 할 인생과 환경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갈 6:1).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매맞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 하여 매맞는 사람보다 더 큰 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순례길에서

한 발을 버리고라도

한선규(청년부)

내 나이 서른살이던 1997년 12월의 어느날, 내게 뜻하지 않았던 사고가 찾아왔다.

강릉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나는 서울 본사로 출장을 오다가 눈길에 내가 몰던 차가 미끄러져 고속도로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를 만나게 되었다.

그 사고로 인하여 나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못난 자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신체의 일부에 장애를 가진 것을 제외하곤 건강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린다.

돌이켜 보면 하루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속의 더러움들과 함께 했으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어찌

할 줄 몰라 끝없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사건을 내게 있게 하신 것 같다.

사람들의 범죄함에 대하여 마가복음서(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끼이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신체의 일부를 포기해서라도 영적인 구원을 얻으라고 권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단의 의지가 불분명한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사고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내가 지금까지 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요즈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실감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 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제 내게 남겨져 있는 과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안위하심에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는 것 같다.

진실로 하나님을 뵈는 그날에 아름다운 생을 살았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영적인 성숙을 위해 그리고 신행일치의 삶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 해 본다.

그리고 내가 병상에 있을 때 눈물과 기도로 위로해 주신 위임 목사님과 여러 부목사님들, 여러 교회 어른들, 그리고 청년부 회원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초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8).



산상기도회를 다녀 와서

주의 청년들이 뜻을 세우고

이승현(대학부)

대학부 헌신예배와 2학기를 개강을 앞두고 8월 29일(토) 대학부 회원들이 청계산 기도원으로 향했다.

대학부 찬양팀과 함께 30분 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 박귀환 목사님의 인도로 약 2시간의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는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를 계속 반복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다시 약 1시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모두 흠어져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시 모여 마지막으로 한 마음과 한 목소리 되어 기도한 후에 기쁨과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

교회에 모두 돌아와 대학부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저녁을 먹으면서 사랑과 나눔을 통해 한 결을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번 산상 기도회에는 몇가지 목적이 있었

다. 대학부에서는 여름 내내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회를 가졌었다. 이번의 산상기도회는 철야기도회의 연장으로 별관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기도하자가 첫 번째 이유였다. 그리고 둘째로는 지난 주일에 드린 대학부 헌신예배에 철저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부가 이제 남은 98년 동안 “150명 출석, 1000명에게 전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도 운동은 펼쳐려고 계획하면서 이를 주님께 간구하기 위한 기도 준비 모임이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시편 110:3).

대학부 회원 모두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부가 방학 기간 동안에만 행해 오던 철야 기도회를 이번 해 부터는

학기 중에도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 심야기도회 후 교회 별관에 모여 기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나라와 교회, 개인, 그리고 세계를 위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기도하려 뜻을 세운 것이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사랑과 기도를 기대해 본다.

대학부 특별 집회

대학부가 9월 26일(토) 오후 2시에서 9시까지 “복음과 전도의 열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특별집회를 개최한다.

여러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도 듣고 찬양과 기도시간을 가진다. 서울교회의 대학생,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 집회는 비전 2020운동 기간 중인 10월 말에 개최될 대학부 전도집회를 앞두고 대학부 회원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하며 전도자로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갖고자 준비한 것이다.

준비위원장은 김현준 형제(아세아연합신학대 3학년) 총지휘는 박귀환 목사님과 김대형 대학부 회장(고려대학교 4학년)이 맡았다.

서울성경대학 · 목회자신학세미나 일제히 개강

지난 주간에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 롯기 반, 마태복음반, 요한서신반, 요나반, 아담(욥기)반과 음악교실이 개강했다. 모든 강의마다 성도들의 말씀 연구에 대한 열기가 가득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세번째 강의가 진행될 때까지는 계속 등록을 받으므로 첫 강의를 놓친 성도들도 다음 강의부터 참여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도 7일 서울 강남YMCA대강당에서 시작됐다.

제 1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11월 16

일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다.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판매장	고문	사장	전무	총무	회계	실행위원				
1·2점포	박귀환	정병무	오정수	이해순	이은희	채항석	한주찬	황재목	임송자	금융숙 이윤정
3·4점포	이성득	김상철	김대기	정동호	박미혜	김현영	김인숙	윤복순	김두희	김현정 강영자 최현인 주화인
5·6점포	민영수	민순구	노문환	탁경준	박정수	김하중	이인근	이정자	박창희	이영희 정정숙
7·8점포	김정현	김영준	이영기	최정희	제오복	윤운식	안인호	박태희	이영숙	함은희 여현진
9·10점포	이순환	윤봉준	최종시	박두영	김선영	이남성	유 신	김선수	조상희	이순영 박연순
11·12 점포	이순환	이남호	김광신	허 숙	최일춘	최재규	김관홍	이양철	김남순	오성애 선연자
위탁점포			김세재	허상한	강희자	곽동희	전정화	한춘홍	전용순	
특관점포		성준경	임훈규	서창원1	김급준	김시환	김해영	이안순	최영란	윤숙지

순례자 컬럼

거듭난 인간

문화란 공동체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 가면서 축적한 생활형태를 말한다. 동양문화, 서양문화를 말하고 문화의 우열을 논하려는 이들도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모든 문화는 죄로 오염된 것이며 또한 문화에는 더 훌륭하다거나 열등하다는 비교를 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아프리카 문화가 구라파 문화보다 열등하다거나 아시아 문화가 아메리카 문화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평가이지 객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젓가락 문화나 포크 문화가 손가락 문화와

다른 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선악 또는 우열을 가릴 수도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으로부터 빚어진 외형적인 부속 문화가 아니고 그 사회를 이끄는 핵문화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 변화가 생길 때에 소위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사는 성도를 거듭난 인간이라 부르는 것이다.

▲ '98바자준비위원회에서는 오늘 11부 예배 후 1층 예배실에서 기도회와 실행위원회를 개최한다. '98바자준비위원회 임직원 및 실행위원 전원의 참석이 요망된다.

◆ 동정 ◆

- ◇ 홍한규 · 모양순 집사(4교구 반포 1다락방)는 강남역 부근에 '주석갈비'를 개업했다(☎ 515 - 1264)
- ◇ 심삼필 성도는 일산시 일산동 동문아파트로 이사했다(☎ 0344 - 917 - 7158)
- ◇ 오늘 점심식사는 최환우 성도 가정에서 제공했다.

■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② 9월 14일 - 제 1교시 / 느헤미야서 연구(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와 목회(유경재 목사)
- ③ 9월 21일 - 제 1교시 / 느헤미야서 연구(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신앙의 위기와 21세기 교회(김영한 교수)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아세아방송(HI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찬양의 시간" 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2.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3.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